

# 더민주, 전대 강행이나 연기나 오늘 가닥

### 대선 준비 vs 권력 다툼 부담...86그룹·중진 찬반 팽팽

### 비대위서 조율 후 당선자 의총서 결정...연기론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종인 비상대책 위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선 직후부터 '합의추대론', '전대강행론', '전대연기론' 등이 제기되면서 당내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합의추대론은 사실상 불가 쪽으로 정리된 상태여서 전대 강행이나, 전대 연기로 정점이 압축된 양상이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27일 비대위에서 전대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총의를 모은 뒤, 당선자 의총을 열어 총의를 모으는 방침이다.

일단 비대위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대 개최 및 연기를 놓고 찬반이 팽팽한 상황 가운데 중립적 성향의 비대위원들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가 전대 개최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원만하게 당선자 의총에서 추인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선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전대 연기와 전대 실시를 둘러싼 논란이 크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이 상대적으로 전대 실시론 쪽이 강하다면, 중진 사이에선 연기론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는 분석이다. 당내 최대 계파인

신문(신문재인) 그룹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 연기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총선이 끝난 후 바로 당권 전쟁을 시작한다면 내부 권력다툼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전당대회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대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당권을 향한 소모적인 계파 경쟁을 조기에 매듭짓고 내년 대선을 위해 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신문 진영에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전대 연기론에 힘을 실어주자니 김 대표의 강경 행보가 부담이고 전대를 강행한다면 김 대표가 불참하면서 '토사구팽'이라는 안팎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 측에서는 은근히

전대 연기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김 대표가 전남 광주를 방문해 "제가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역할하러 (더민주에) 왔다"면서 당의 비상상황이 끝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은 대표직 유지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김 대표의 합의 추대가 불가하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전대 연기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전대 강행보다는 연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 같다"며 "전대를 강행한다면 다시 패권주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김 대표를 이용만하고 용도폐기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누리 원내대표 친박-비박 세대결

### 내달 3일 경선...후보 6명 거론

새누리당이 결국 원내대표를 추대하지 않고 경선을 통해 뽑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치열한 세력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내달 3일 열리는 경선을 꼭 일주일 앞둔 26일 현재 거론되는 후보만 6명이다. 모두 4선 중진으로서 친박계로는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홍문중(경기 의정부)의원이, 비박계에서는 김재경(경남 진주시) 김정훈(부산 남구) 나경원(서울 동작)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거론된다.

차기 원내대표는 당 내분 수습 뿐 아니라 총선 이후 당정 관계 재정립에 대한 역할과 함께 여소야대의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 전개될 3당간 협상을 위한 정치력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4·13 총선 참패 이후 친박계의 2선 후보론도 제기됐으나, 오히려 집권 후반기 박근혜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해 교통정리가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차기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선출을 위해 현재로서는 6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와도 맞물리면서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총선 참패 상황을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당 위기 상황에 견주어 당시처럼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대세적이다. 아직은 아무도 공식 출마 선언한 후보는 없다. 다만, 계파 내부에서 표 분산을 막고, 당 내부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몇몇 후보 간 합종연횡이 이뤄지면 양자대결까지 압축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누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20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전원이 국민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더민주-국민의당 차기 광주시당위원장 누구

### 지역 조직 재편 관심...더민주 다수 거론·국민의당 중진들 중앙당 역할 변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총선 뒤 곧 전열정비에 들어가면서 시당과 지역 위원장 등 지역 조직 재편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민주는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시·도당 등을 실시한 뒤 위원장 등을 인선할 예정이다.

박해자 의원이 맡은 시장 위원장은 박 의원을 포함 복수의 총선 출마자, 기초단체장, 시의원 등이 불망에 오르고 있다. 자치구별 지역위원장도 총선 출마자 또는 지방의원 등이 겸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의 광주

8개 선거구를 국민의당에 모두 내줘 원내인사가 당직 대부분을 채워야 할 형편이다.

국민의당은 지역위원회마다 당선자들이 포진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여유 있어 보이지만 조직이 미비한 탓에 할 일도 많다.

우선 김종철 의원이 맡은 시장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쏠린다. 당선자 가운데 4명이 3선 이상 중진 대열에 올라 이들의 중앙 조직 내 역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리' 역할을 할 당선인 권은희 의원이 시장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

도 나온다. 그러나 중앙당 보직을 맡지 못하거나 차기 광주시장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일부 중진에게도 시장 위원장은 탐나는 자리일 수 있다.

지역 위원장은 당선자들이 자연스럽게 맡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위원회 조직 구성이 당면 과제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아직 지역위원회를 갖추지 못했으며, 전당대회 연기 방침으로 시간까지 벌게 돼 차질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권일기자 cki@

## 더민주 광주시의원들 당 쇄신 요구

### 29일 연석회의 개최...총선 평가·혁신 방안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보이콧'한 데 이어 조만간 시·구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당의 쇄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민주 소속 13명의 광주시의원들은 전남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거부한 뒤 전남 광평의 모처에서 1박2일간 자체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서 이들은 오는 29일 광주시당에서 시·구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와 향후 당 쇄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참석 의원은 "연석회의에서는 총선 과정에서 지방의원과 광주시당, 중앙당이 반성해야 할 부분과 책임져야 할 부분 등 총선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지방과 중앙이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지난 4·13 총선에서 일부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 등 지역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중앙당의 공천과 호남 선거에 대한 전략 부재

등이 선거 패배로 이어졌는데도 중앙당과 지도부가 이러한 반성이 없다는 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또 이 자리에서 총선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중구난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위원장과 시당위원장 문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지역위원장과 시당위원장은 낙선자 소수 몇 사람이 논의해 결정되는 안된다"면서 "연석회의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는 시·구 의원의 입장도 정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 시의원 전원은 전날 오후 1시부터 40분간 광주시당에서 당 지도부와 의 간담회가 예정됐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시의원들은 "민심을 추스르겠다고 오는 당 지도부가 50여명 시·구의원들과 40여명 동안 무슨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총선참패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시·구의원이나 당원, 당직자들과 사전에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해야 했다"며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朴대통령 "김영란법 경제위축 우려"

### 언론사 간담회서 언급...시행 5개월 앞 개정 여부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부정적 견해를 밝힘에 따라 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이나 대가성 여부를 떠나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경조사비와 선물의 범위까지 제한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법 제정 단계부터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돼 정부로 넘어왔기에 그에 따른 시행령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행령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시행령은 금품수수금지 예외

조항이다. 김영란법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대접 등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규정할 시행령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공무원윤리규정은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허용하는데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작년 3월 "불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헌법소원을 언급하며 법 개정 필요성도 내비쳤다. 그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선 현재에서 결정을 또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축수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금품수수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는 데다 여야간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쟁점도 두드러지지 않아 개정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NPL 물건		
NO	사건번호	물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0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믿음이라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